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의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한민족, 앞으로 전세계 父母國이 된다

세계 석학 및 예언가들 우리나라 주시하고 있다

인류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장구한 세월동안 인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 아름답고 꿈 같은 세상을 표현하여 지상천국, 이상향, 태평세계로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려고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금도 그 꿈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세계 정치, 종교, 경제, 문화는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목표는 환상에 불과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목표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 그리고 마찰과 충돌로 파괴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난 이상기후, 지진, 자원고갈, 인구증가, 테러와 살상, 전쟁의 재발 현상까지 더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한계

현대 서양의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주의가 삶의 중요한 수단과 목적이 되어 동양의 숭고한 정신문명까지 잠먹어 들어가는 인류사적 지구적 위기의 형국에 놓여 있다. 압박하계도 미래의 대안과 희망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받는다. 전 지구적 혼란과 위기,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 상실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찍이 서구의 물질문명의 한계가 동양의 정신문명으로 전 지구적 재난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동서양의 지성들은 시사하고 있다.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인류는 농업, 도시, 사상, 산업, 지식혁명의 다섯 번의 혁명을 거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한반도

왔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정신혁명의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동양의 정신문명, 그 가운데서도 한민족이 구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이즈음에 세계의 중심에 "한류가 급부상"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미처 간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자적 비전과 무한한 격려와 사랑을 담고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도덕군자의 나라, 순결하고 깨끗한 나라, 정의 많고 사람 살기에 안전한 나라로 동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독일의 그래픽 작가이자 신비주의의 사

상가인 카타리나 베버 부인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한된 기독교 생활문화권의 탈피와 메시아의 출현 장소로 '아시아'를 내비치고 있다. 현대 서구문명의 위기와 구원의 길, 새로운 정신적 이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출현은 아시아에서 기대하고 있으며, 곧 신의 섭리라고 하였다. 게오르규는 25세기 세상에 알려진 루마니아 작가로서 인간을 절망에서 구원할 열쇠가 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와 러시아가 시작되는 '태평양의 열쇠'라고 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열쇠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을 그는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했다.

강증산은 증산도전에 "부처와 예수의 기운은 거두었다. 도덕 사회가 실현될 성지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민족의 우수성 바로 알자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은 중국의 불교를 해동불교로,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여 조선유학으로 발전시켰다. 로마의 카톨릭은 한국의 기독교로 발전시켜 역으로 세계로 펼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본시 종교성향이 강하여 모든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이고도 대 통합적 사상으로 승화 발전시켰다. 900여 회 이상의 외세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은근과 끈기, 불굴의 투지에 빛나는 총명과 슬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이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생명존중과 인간 존중 사상이 육체에 아로 새겨져 있다.

앞으로 미래 세계는 가장 투철한 민족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 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우리 한민족의 숭고하고 우수한 정신문명이 세계 평화와 행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구촌의 대통합과 인류 평화, 그리고 지상선국 건설에 이바지할 민족으로 한민족이 될 것임을 동서고금의 유수한 예언서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왜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의 주역이 한민족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우리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재인식과 바른 이해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이다. 한민족이여! 천손민족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웅비하라! 펼쳐라!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시대적 소명이요, 지상명령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85)

"종의 종 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종의 종이 되어야 나를 이겼다가 되고 종의 종 생활을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다. 이것이 성경에 써있지만 이 귀중한 말씀을 자존심이 살아있는 고로 우습게 여긴다.

자기가 조금 더 안다고 모르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리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노릇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요,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요, 자기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死即生 生即死

사즉생 생즉사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330척의 왜군과 싸워야 하는 이순신 장군은 부하를 독려하기 위하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即生 必生即死)"라며 결사항전을 외쳤고, 세계 해전(海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대승을 기록하였다.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말이 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눅 17:33)" 예수의 말이지만 진리임에 틀림없다.

구세주 조희성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셨다고 한다. 하다못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더라도 어찌보다 조금 더 많이 했고, 어머니가 멀리 떨어진 마을 공동우물에서 물 길어오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집 뒤란에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지 않자 한밤중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성품이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조희성님의 이런 성품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모진 연단을 시켜서 구세주로 완성하신 것이다. 구세주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는 존재이다. 죄란 고통이요

사망의 쓰는 영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구세주는 죄인의 고통을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죽을 고통을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류의 죄가 대속(贖)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한 사람의 죄가 죽음의 경지에 이르러 하는 것일진대 그 죄를 대신 이기려면 죽음의 경지를 이겨야 한다고 하셨다.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70억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70억 번 죽음을 이겨야만 한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마지막에는 육신마저 버리셨다. 당신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영생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버리신 것이다. 인류의 영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진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특별기고(1면과 3면)

*고조선 히브리어 와당 11점 더 찾았다(3면)

*연화문 아닌 근화문 수막새로 볼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1면 3면)

이역자 총재 부산재단 초청예배

일시: 7월 3일 오전 10시

장소: 부산재단



대동강 출토 와당 연화문 아닌 근화문 수막새로 볼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

蓮花文 蓮花文

전후(713호, 6월 15일자)에서 고조선 수막새에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밝히면서 그 동기를 자세히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기를 밝히기 전에 먼저 무궁화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언제 전래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다. 언제부터 무궁화가 우리의 상징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무궁화에 대하여 BC 8-3 세기에 기록한 문헌이 있는 것을 볼

때 무궁화는 최소한 고조선 시대에도 우리민족에게 유의미한 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된 지리서(地理書)인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고조선)에 훈화초(薰華草) 즉 무궁화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 군자국(君子國)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이미 고조선이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란이 있는 '단기고사(檀奇古史)'에는 근수(槿樹)로, '한단

고기(檀檀古記)'에는 환화(桓花) 또는 천지화(天指化)로 표현되어 있고, 천신께 제사지내는 제단(祭壇) 둘레에 심은 것으로 보아 신성한 꽃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를 일컬어 근역(槿域)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뜻이며, 신라시대에는 중국에 국서(國書)를 보낼 때 '신라'라는 국명 대신에 근화향(槿花鄉) 즉 무궁화 마을이라고 썼다.

또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는 과거(過擧)의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대나무 대롱 끝에 무궁화를 달아 어사관의 양쪽에 길쭉하게 끼워주었고, 궁중연회 때 신하들이 좋은 음식을 바치며 임금의 만수무강을 빌 때, 그 신하들의 사모(紗帽)에 진찬화(進饗花)라고 하여 무궁화를 꽂았다. 이는 무궁화가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면 하단으로 계속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재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안 죽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만호는 승리재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재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